

‘민주 당대표 도전’ 전북 찾은 박용진 의원, 표심 잡기 총력

“당 바로세우기, 전북이 결정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 을)이 전북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북이 뒤집히면 민주당이 뒤집힐 수 있다며 전북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전당대회 2주 내내 부르짖었던 건 선당후사이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써 인 부산 강서구로 간 것이 결국에는

20일 예정 전북 선거서 전략적 투표 요청
전주시 토크콘서트 열어

대선 승리를 이끌었다”, “선당후사의 자세는 스스로 죽는 길이 아니라 나를 던져 당을 살리는 사즉생의 자세이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저학력자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성찰과 혁신을 하지 않은 민주당 탓이다”며 성찰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한 당으로 변하고 있고 부정부패 연류자의 당 개입을 막는 당헌 80조를 바꾸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윤명진정 장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 15일 전주시한옥마을을 방문해 ‘호남, 바람이 분다. 심상치 않다! 토크콘서트’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바로 세우기 위한 호남의 선택이 필요하며, 광주 kbc 지지를 조사에서 박용진 이재명 지지율이 한자리 수 격차로 줄었다며 15만명의 전북 권리당원들에게 전북의 아들 박용진을 전북에서 바로세워달라”고 어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당의 이념을 바꿔서는 안되며,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

방하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반대하고 사회연대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특히, 그는 “20일 예정되어 있는 전북 선거에서 당이 균형을 맞추고 당 내부에 견제세력, 비판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풍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15일 전주를 다시 찾은 박

용진은 한옥마을에서 ‘호남, 바람이 분다 심상치 않다!’ 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고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호남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16일 당원 및 대의원과 만나고 전북지역 권역별 TV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당대표 향한 도전 멈춘다”

당권 도전 민주 강훈식 의원, 후보 전격 사퇴
당대표 경선, 이재명-박용진 후보 2파전 압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5일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강 후보는 97세대인 박 후보와의 반명 단일화 선을 그었다. 강 후보는 이날 낮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두 번의 연이은 패배 후 집단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이 두렵기도 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우리 안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슬모 있는 민주당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자세를 곧추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며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에게 맡기고 전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TV토론에 나가면 원외지역의 실용과 고충을 전해달라고 했던 경남의 지역위원장, 민주당을 젊고 새롭게 바꿔 달라고 응원했던 광주시민, 당심과 민심이 괴리돼선 안 된다고 격려했던 강원 대의원 총청의 중심이 돼 달라고 했던 원로 당원, 부족한 저를 공개 지지해준 김영춘·임종석·조응천·여기주·정철민. 무명의 강훈식을 여기까지 끌어주신 지지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강훈식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민주당을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더 젊고 유능한 수권 정당으로, 다양성이 숨 쉬며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은 더 바빠 더 치열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율러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며 “지금까지 보내준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정부 문 케어 폐기, 국가 의무 폐기”

민중 윤영찬 의원 “국민 생명·건강 건드는 것”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12일 복지부가 ‘문 케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케어 폐기는 국가의 의무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는 선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와 실력으로 충분히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슈퍼갑에는 막합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려고 한다.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는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재정의 문제라는 말은 비합리한 거짓말이다. 문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양호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조800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보다도 많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은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보 확대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문 케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영찬이 제기했다. /뉴스1

문재인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12일 복지부가 ‘문 케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케어 폐기는 국가의 의무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문 케어를 건드리는 것은 단순히 문 정부 지우기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건드는 것이다. 풀이할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했다”며 “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함께 태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는 획기적인 정책이고, 세계가 부러워

“日, 과거 침략·수탈 진술한 고백·사과 반드시 선행해야”

장호권 광복회장, 광복절 77주년 경축식서 “양보엔 한계, 자세엔 범해선 안 될 원칙 있다”

장호권 광복회장(사친)이 광복절 77주년에 일본과의 공존 공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과거 침략과 수탈에 대한 진술한 고백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불인정한 한일 관계는 향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양국이 함께 침몰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서로 가져야 하기에 깊은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혹한 국제 정세가 동북아에도 영

향을 줄 것이라곤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라며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다시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페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공존 공생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난 역사 속에서 깊이 새겨진 민족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국의 과거 침략과 수탈에 대한 진술한 고백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율러 “그리고 나서 우리 이념을 심사숙고해 받아들여 점차 우리 후손이



평화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준비해 주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일본과의 공존 공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

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는 타협이라지만, 양보엔 한계가 있고 자세엔 범해선 안 되는 원칙이 있다는 걸 간파해서도, 간파시켜서도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아직도 일본은 은연 중 극우 세력의 식민 사관을 통해 한반도 침탈을 범죄가 아닌 호혜했다고 호도하려 는 오만함과 불순함을 갖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자존을 짓밟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으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로 잘못이란 걸 깨우치게 해야 한다”며 “일본이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와 미래의 공존 상생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민주 당권주자들,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 희생 존경·경의”

이재명 “국익 중심 실용 외교 통해 위기 기회로”
박용진 “위기 극복, 성장하는 대한민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15일 제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빼앗긴 빛을 되찾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세운 날”이라며 “일제의 탄압과 폭거에 굴하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열들께서 남겨주신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이분법적 사고, 양자택일을 뛰어

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율러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자주독립의 꿈을 잃지 않았던 애국지사들의 숭고

한 희생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 77주년 광복절이다”라며 “광복절은 빛(光), 돌아올 복(復) 빛을 되찾는다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이라고 표했다.

그는 또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높이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뉴스1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에 반드시 유치” | 고창군의회, 결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12일 제29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달 11일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을 보유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공모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 갯벌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전라북도 국립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세계자

연유산 갯벌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전라북도 고창 유치를 반드시 이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고창군 일반회합단지 내 대규모 시설 투자 유치를 위해 ‘고창갯벌’을 지키고 나아가 환경을 보전하고자, 유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 하고자 하는 결정과 태양광 건립을 추진 중이었던 심원면 염전 부지 55만평을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 유산

의 완충 구역 확대, 갯벌 및 식생 복원, 철새 서식처 조성이 포함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서 공모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고창군은 2010년 유네스코 람사르습지 등록,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22년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고창군의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와 메

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왔다는 점에서 ‘고창갯벌’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회는 갯벌 보전에 대한 의지, 국제적 가치 인증, 우리나라 전체 갯벌을 대표할 수 있는 지리적 상징성 및 습지 보전 거점 건립을 위한 최상의 부지마련 등 그간의 노력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고창 유치를 반드시 이어지길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최형열 도의원,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나서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도농복합도시 특수상황을 고려,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과수농가(복숭아) 및 취약지역을 방문하여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권과 중부지역에 재산·인명피해가 속출했고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과 재난 대비를 위해 실시된 안전점검으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최 의원은 매년 태풍 등 집중호우 인한 피해가 가장 잦은 과수농가(삼천 3동)와 저지대 및 급경사지 등의 재난 취약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최형열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번 집중호우로 타지역의 피해가 큰 만큼 도내 재해 취약지역과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재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